

대학생의 선호직업유형이 확증편향과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

노선희, 김기승*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The Effects of Preferred Job Type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Confirmation Bias and Job Anxiety

Seon-Hee Roh, Ki-Seung Kim*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선호직업유형이 진로결정과정에서 확증편향과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양적연구이다. 본 연구 설문조사는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7. 7. 10 ~ 8. 8까지 5주 동안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중 유효한 482명을 연구대상으로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을 거쳐, SPSS 18.0 통계와 AMOS 18.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확증편향에 대한 선호직업유형 중 사업형은 정(+)적 직접영향력($\beta=.374$), 자유형은 정(+)적 직접영향력($\beta=.326$), 직장형은 부(-)적 직접영향력($\beta=-.274$)을 보였다. 취업불안은 직장형만 더 가중되며, 확증편향은 사업형과 자유형이 노력이나 성취동기에서 원인을 찾는 반면, 직장형은 사회적 환경 및 구조적 문제로 인식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국, 확증편향과 취업불안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개인별 선호 직업유형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선호직업유형이 취업준비과정에서 갖는 확증편향과 불안감을 이해하고 취업불안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이 검증되었으며, 진로지도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quantitative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preferred type of occupation on a confirmation bias and job anxiety during the process of making a career decision.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for 500 weeks from July 10 2017 to August 8, 2017. Among them, 482 valid samples of data were analyzed by data coding and data cleaning using SPSS 18.0 statistics and the AMOS 18.0 program.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that the type of business preference for an affirmative bias has a positive (+) direct influence ($\beta = .374$) and the type of freedom has a positive direct influence ($\beta = .326$) and a negative direct influence ($\beta = -.274$). In the case of job anxiety, the influence of job type is more increased. The confirmation bias shows that the business type and freestyle type find cause in effort or achievement motive, while rect type is recognized as social environment and structural problem. In conclusion,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degree of confirmation bias and job insecurity. This study shows that college students' preferred occupation types can help them to understand the bias and anxiety that they have in preparing for the job and help to reduce job anxiety, and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be useful for career guidance.

Keywords : Preferred Occupation Type, Confirmation Biases, Job-Seeking Anxiety, Career, Personality Psychology

*Corresponding Author : Ki-Seung Kim(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email: kbs4984@hanmail.net

Received May 21, 2019

Accepted August 2, 2019

Received July 15, 2019

Published August 31, 2019

1. 서론

1.1 연구문제 및 연구목적

현재 우리 사회의 대학진학률은 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하다. 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는 우리의 학업에 대한 열망을 반증한다. 이런 결과라면 취업률도 1위여야 하며, 임금 역시 1위가 되어야 마땅하나 현실적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

2017년 통계청 발표기준, 대학진학률이 68.9%, 취업률은 34.7%로 우리 사회의 과도한 학력 중시 풍토는 경제활동의 수단을 뛰어넘어서 사회적 서열화의 기준역할을 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사회적 서열감은 학벌의 서열화, 연봉의 서열화로 그 영향은 서열이 높은 대학진학이 곧 진로와 직업으로 연결된다는 불안의식으로 유발되고 대학생들의 직업선택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대학의 쏠림 현상과 청년층의 취업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정년연장, 최저임금보장, 주 52시간 근로제 등등 노동자의 임금소득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줄여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고용방안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임금 격차는 심하고 고용주와 노조는 극한 대립구조를 보이기도 한다. 그중에서 '청년 고용 대책'이 가장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은 여전히 대학진학을 목표로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무시한 주입식 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자신의 적성과 꿈보다는 일단은 대학에 들어가고 보자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도록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학생들에게 학교 부적응을 야기 시키고 심리적 우울과 부적응을 겪게 만드는 결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1, 2]. 여기에 우울의 정도에 따른 심리요인으로 불안과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3].

이 점을 입증하듯 대학생들은 남녀 불문, 졸업을 늦추거나 취업상황이 어려울수록 스펙 쌓기에 매달린다[4]. 진로 문제해결에 대한 명확한 이해 부족과 잘못된 진로 의식 특히, 스스로 진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교육 환경이 진로 결정에도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것이다[5]. 급변하는 사회구조에 의한 직업체계의 빠른 변화도 진로선택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6],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잦은 노동 이동 경력을 형성[7],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8]. 취업준비생이 지각하는 취업 장벽은 개인이 가진 특성에 따라 인식하는 정도가 다르며

[9], 취업 스트레스와 취업불안은 학교와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10], 대학생들의 취업 방해 요인에 대한 걱정, 두려움이 취업불안을 더 강하게 발생시킨다[11]. 자신이 취업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때는 불안을 적게 경험하며[12],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OECD 다른 국가들처럼 높고,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위해 졸업 전 휴학을 하거나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 '휴학신드롬' 현상을 보인다[13]. 이처럼 취업불안의 하위요인 중 취업불안 유발 원인이 진로 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14]. 대학생들이 겪는 취업불안을 낮추기 위해 진로상담, 진로 코칭 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15]. 진로 결정 시 발생하는 취업불안도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정보에 순응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자연스럽게 직업 선호도가 형성되거나 진로와 직업에 대한 확증편향이 형성됨이 검증되었다[16]. 대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선호도 연구에서도 직업에 대한 일반적인 명성 수준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17].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해 개인별 직업유형에 대한 선호도는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사무직, 또는 서비스직종과 상관없이 호불호가 있지만 자신의 적성이나 기호에 상관없이 사회적 선호도를 자기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교육의 편파적인 교육행정 운영, 과정보다 결과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풍토와 주입식 교육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자신의 개성과 창의성을 상실로 드러낸다. 이렇게 형성된 선입관, 즉 확증편향은 진로선택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게 되며, 진로 결정에 불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결국 확증편향은 취업 실패의 걱정과 두려움으로 취업불안이라는 이차적인 문제까지 유발시킨다. 취업 이전 제대로 된 진로결정을 못하면 불안 심리를 더욱 가중시키므로 대학생이 선호하는 직업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면 개인별 맞춤 교육방법과 직업적성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선호도를 설문지를 통해 분류, 조사한 다음 이 자료를 바탕으로 확증편향 및 취업불안의 관계를 분석하여 직업유형의 하위요인이 확증편향에 가지는 영향과 확증편향의 매개 효과, 그리고 그에 따른 취업불안 수준을 검증하고자 한다.

1.2 이론적 배경

1.2.1 대학생의 진로발달

대학생들은 대학진학 이후 오히려 진로 대안을 확장시키며, 진로선택을 위하여 의사결정 및 진로 준비 행동

을 통한 직업 지위의 확립 과제가 주어지는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학생들은 진학할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기 위해 현실적인 여건과 타협해야만 하며[18],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대학생들의 수준을 구분하는 분류는 대학생의 각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개별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근거자료로 보았다[19]. 진로에 대한 발달적 관점을 최초로 제시한 Ginzberg는 하나의 발달과정으로 진로선택을 보았으며, Super는 Ginzberg의 이론이 진로 의사결정과정에서 흥미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개인의 일생을 포괄하지 못함을 비판, 다중적인 생애 역할의 발달을 진로발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1.2.2 선호하는 직업 유형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유형을 직장형, 사업형, 자유형으로 구분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20].

직장형은 주어진 책임과 임무를 수행하며 소속감과 조직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에 더 안정감을 소유하는 형이다.

사업형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며 스스로 결정하고 활동한 만큼 실제적인 금전적 이득으로 남으며 자신의 활동영역이 넓혀져 가는 것에 더 만족감을 소유하는 형이다.

자유형은 조직에 속하지는 않으나 조직 활동에 개입하여 활동할 수도 있으며 매우 개인적이고 소규모적인 활동을 하는 전문성이 강한 업무를 선호하는 형이다.

1.2.3 확증편향

1960년 영국 심리학자 Peter Wason이 제시한 확증편향 이론은 기존의 신념을 선호하는 확증편향을 ‘규칙발견 과제(가설(rule discovery task))’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확증편향은 논리학에서 ‘불완전한 증거 오류(The Tallacy of Incomplete Evidence)’라고 하며, Nickerson은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을 ‘진리에 대한 여부가 불확실한 가설이나 혹은 자신의 믿음을 부적절하게 강화하는 행위’로 선호하는 가설에 뒷받침되는 정보를 수용하며, 반대되는 정보는 도외시하는 무의식적인 인지 과정을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라 하였다. 확증편향은 비판적인 사고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과정에 확증편향이 방해하기 때문이다.

1.2.3 취업불안

대학 졸업 이후 불확실한 취업으로 인해 유발되는 불안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성장할 대학생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한 경우 공황장애, 대인 기피, 우울증 등 반사회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취업불안은 사회적으로 경기침체나 대학 졸업을 앞둔 상황, 또는 졸업한 사람들이 취업을 못 하는 상황을 접할 때와 같은 경험과도 관련이 깊다. 또한, 학교 성적이 낮거나, 충분하지 못한 취업준비, 전공 관련 문제,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 등 외적 요인을 자신이 어떻게 평가하고 느끼는지에 따라 다양한 취업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부모와 교사가 신념이나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21].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7년 7월 10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90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에서 누락된 응답이 많은 경우와 부적절한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총 482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2.2 연구가설

- H1. 대학생의 선호직업유형은 확증편향 및 취업불안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도는 어떠한가?
- H2. 대학생의 선호직업유형은 취업불안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H3. 대학생의 선호 직업유형은 확증편향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H4. 대학생들의 확증편향 정도는 취업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H5. 대학생의 선호직업유형과 취업불안의 관계에서 확증편향은 매개 효과를 가질 것인가?

2.3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이 선호하는 직업유형에 대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 확증편향 및 취업불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18.0 통계 프로그램과 함께 AMOS 18.0 프로그램도 사용하며, 올바른 가설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해 본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 그 빈도를 알아보고,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기술 통계량을 산출하였다.

둘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전공)에 따른 확증편향 및 취업불안의 인식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ANOVA 및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신뢰도 검정을 위해 이론변수들에 대한 측정변수들의 Cronbach's α 계수를 구해 내적 일치도 평가, 측정할 이론변수에 대해 0.7 이상으로 전체 측정항목의 Cronbach's α 계수를 설정하였다.

넷째,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 측정변수들을 이용, 이론변수에서 나타나는 상관관계와 측정변수에서 이론적 변수들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집중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다섯째,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ng model)을 분석 후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한 것은 검증하려는 모형에 대한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함이다. 이론 변수들간 상관관계와 검증하려는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과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는 선호하는 직업유형이며,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는 확증편향 및 취업불안 요인이다.

2.4 측정 도구의 구성

대학생들의 취업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조규판(2008)이 사용했던 이론을 바탕으로 취업불안 척도를 본 연구에 적용하며, 취업불안의 원인을 제공한다. 이 요인은 취업불안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지각된 진로장벽이나 취업 장벽과 같이 인지적 변인으로 보는 것이다. 이를 변형하여 취업불안 척도 중에서 취업불안 유발상황과 취업불안 상태의 두 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고자 한다. 취업불안 유발상황과 취업불안 상태로 문항 묶음으로 각 문항은 1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부터 5점인 “매우 그렇다.” 까지 리커트로 반응하도록 준비한다.

3. 연구 결과

3.1 표본의 특성

분석에 사용된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482)

Division		N	%
Gender	Mam	271	56.22
	Woman	211	43.78
Age	Under 22	172	35.68
	23 to 25 years	176	36.52
	More than 26 years	134	27.80
Major	Humanities	134	27.80
	Social	84	17.43
	Engineering	246	51.04
	Arts and Physical Education	18	3.73
Career College	Employment	325	67.43
	Graduate School Entrance	127	26.35
	Other	30	6.22

3.2 측정 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도 검증

측정 도구에서 신뢰도란 측정 문항 간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문항 측정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 문항이 의도한 변수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함께 신뢰성도 분석해야 한다. 신뢰성은 측정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며, 주로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검증을

실시하는데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값이 0.7 이상이면 사회과학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개인별 선호직업유형을 제외하고, 다문항 측정 도구를 이용한 확증편향 및 취업불안 요인 부분에서 신뢰도 측정결과는 Table 2과 같다. 신뢰도 분석결과, 확증편향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0.734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취업불안 변인의 Cronbach's α 값은 취업불안유발상황 0.804, 취업불안상태 0.786의 내적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 Reliability verification

Variable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Alpha value
Confirmation bias		24	.734
Job insecurity	Trigger situation	8	.804
	Job insecurity	13	.786

Table 3. Technical statistics and regular distribution of key spokesmen

Neasurement Variable	M	SD	W	K
Confirmation bias	5.207	1.09	-.386	-1.25
Employment inconvenience situation	3.585	.990	-.361	-.745
Job insecurity	3.191	.807	.698	-.147

정확한 단변량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비정규성을 알 수 있는 왜도(skew)와 첨도(kurtosis) 두 가지를 분석하였다. 왜도 지표에서 절대값이 3.0 이상으로 나오면 그 분포가 매우 큰 편포로 해석하고 있으며 첨도 지표에서는 절대값이 대체로 8.0부터 20.0 정도로 나오면 첨도가 '매우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3에서 측정 변인의 두 가지 왜도와 첨도 분석 결과를 보면 측정 변인의 왜도와 첨도가 각각 절대값이 3.0이나 8.0 미만으로 정규성을 확보한 것을 판단하였다.

Table 4. Multi-Publicity Test Results

Metric	Tolerance	VIF	
Confirmation bias	.424	2.411	
Job insecurity	Trigger situation	.376	2.728
	Condition	.641	1.598

본 연구의 모든 잠재변수는 형성적 지표들로 구성되는데, 형성적 지표 검증은 반영적 지표 검증은 다르다. 그 이유는 두 지표 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며 형성적 지표는 측정지표가 잠재변수의 구성요인이 되고 측정지표의 변화가 잠재변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형성적 지표에서 반영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측정지표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과 수렴 타당도(convergent validity) 및 판별 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검증보다 다중공선성 검증과 측정지표에서의

Table 6.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a	b	c	d	e	f
Rectangle	1					
Business type	.661***	1				
Freestyle	.670***	.523***	1			
Confirmation bias	-.639***	.436***	.675***	1		
Trigger situation	.586***	-.402***	-.617***	-.614***	1	
Condition	.615***	-.467***	-.603***	-.732***	.651***	1

***p<.001

경로계수 방향으로 정(+)적의 혹, 부(-)적 관계인지와 지표들 사이에서 경로계수 비교를 통하여 지표의 적절성(indicator relevance) 및 통계적유의도가 중요하다.

다중공선성 검증이 필요한 까닭은 측정지표와 잠재변수 사이의 관계가 다중회귀 분석에 의해 결정되므로 독립변수인 측정지표 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했을 경우 정보가 중복되고 R²값이 지나치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성적 지표는 측정지표들이 제안된 방향으로 드러나는지, 잠재변수에 어떤 지표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잠재변수를 구성하며 측정지표 사이에 적절성을 나타내고, 지표의 적절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할 때에만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

Table 4는 본 연구에서 형성적 측정지표가 가지는 다중공선성 검사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0 이상으로 나오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모든 측정 지표들 중에서 VIF 값이 가장 높은 것이 2.787로 나왔으므로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 One-Way Variation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Majority

	N	M	SD	F	D	Post-hoc
Confirmation bias	humanities	134	5.179	.919	3.002	.266
	Social	84	5.248	.790		
	Arts	18	5.297	.739		
	Engineering	246	5.344	.783		
Trigger situation	Humanities	134	3.595	.791	.045	.364
	Social	84	3.567	.822		
	Arts	18	3.495	.776		
	Engineering	246	3.584	.818		
Condition	Humanities	134	3.165	.785	.433	.025* Social>arts
	Social	84	3.285	.683		
	Arts	18	3.119	.746		
	Engineering	246	3.226	.676		

*p<.05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확증편향 및 취업불안 지각의 차이검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이에 따라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취업불안상태요인에서 예체능계열 집단보다 사회계열 집단의 지각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요인에서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Table 6에서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직장형은 매개변수인 확증편향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종속변수인 취업불안유발상황 및 취업불안상태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독립변수인 사업형과 자유형은 매개변수인 확증편향과 정(+)의 상관관계를, 종속변수인 취업불안유발상황 및 취업불안상태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매개변수인 확증편향과 종속변수인 취업불안유발상황 및 취업불안상태 간에는 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종속변수인 취업불안유발상황 및 취업불안상태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변수는 각각 자유형 ($r=-.617$), 확증편향($r=-.732$)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선호직업유형 경향에서 직장형 특성이 강할수록 사회중요도 확증편향을 가지며 취업불안 수준이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면 사업형과 자유형 특성의 증가는 개인 중요도 확증편향을 가지며 취업불안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론적인 방향성에 관한 함의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3.3 최종모형 및 가설검증

연구모형 검증결과에서 매개변수에 의한 간접영향력을 검토하기 전 잠재변수 간 직접영향력에 대하여 가설을 검정하였다. 먼저 구조모형에 대하여 분석결과는 Figure 1과 Table 7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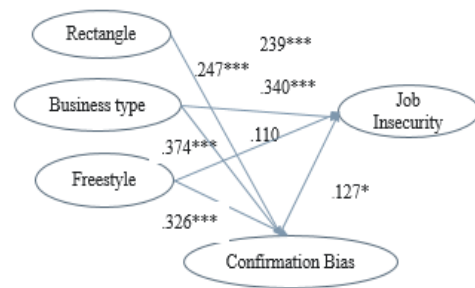


Fig. 1. Structural model analysis result

첫 번째로 선호직업유형의 3가지 차원이 취업불안에 대해 갖는 직접영향력은 ‘자유형→취업불안’의 경로를 제외하고, $p<.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먼저, 대학생의 직장형 특성이 취업불안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은 채택되었다($\beta=.239$). 사업형 특성은 취업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은 채택되었다($\beta=-.340$). 다만, 자유형 특성은 취업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가설이 기각되었다($\beta=-.110, p>.05$).

두 번째로 선호직업유형이 확증편향에 대해 갖는 직접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직장형→확증편향’의 경로에 대해서는 $p<.001$ 수준에서 부(-)적 직접영향력($\beta=-.274$)을 보여 연구가설은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사업형→확증편향’의 경로에 대해서는 $p<.001$ 수준에서 정(+)적 직접영향력($\beta=.374$)을 보여 연구가설은 채택되었으며, ‘자유형→확증편향’의 경로에 대해서는 $p<.001$ 수준에서 정(+)적인 직접영향력($\beta=.326$)을 보여 연구가설은 채택되었다.

세 번째로 매개변수인 대학생의 확증편향이 종속변수인 취업불안에 미치는 직접영향력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beta=-.127, p<.05$), 관련 연구가설은 채택되었다.

Table 7. Structural Model Analysis Results

Theory		Route	P	SE	t(CR)
Theory 2	2-1	Rectangle→ Job insecurity	.239	.062	4.413***
	2-2	Business type→ Job insecurity	-.340	.068	-5.675***
	2-3	Freestyle→ Job insecurity	-.110	.064	-1.807
Theory 3	3-1	Rectangle→ Confirmation bias	-.274	.058	-5.532***
	3-2	Business type→ Confirmation bias	.374	.062	7.022***
	3-3	Freestyle→ Confirmation bias	.326	.060	6.308***
Theory 4		Confirmation bias→ Job insecurity	-.127	.069	-2.184*

* $p<.05$, *** $p<.001$

Table 8. Effect decomposition result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Metric		Rectangle	Business type	Freestyle	Confirmation bias
Direct effect	Confirmation bias	-.274	.374	.326	-
	Job insecurity	.239	-.340	-.110	-.127
Indirect effect	Confirmation bias	-	-	-	-
	Job insecurity	.192	-.248	-.134	-
Total effect	Confirmation bias	-.274	.374	.326	-
	Job insecurity	.431	-.588	-.244	-.127

종합하면, 간접효과에 따른 매개 효과에 관한 세부 연구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그리고 선호 직업 유형의 3가지 차원이 각각의 취업불안에 대한 간접효과 크기는 직접 효과의 크기와 비교할 때, 직장형과 사업형은 간접효과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연구의 결과에서 직접 효과가 간접효과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자유형은 다른 것에 비해 간접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점에서 간접효과의 중요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매개 효과의 양상에 있어서 선호직업 유형의 3가지 차원별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직장형, 사업형 각각과 취업불안의 관계에서 확증편향은 부분 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유형과 취업불안의 관계에서 자유형은 취업불안에 유의한 직접 효과를 갖지 못하므로 확증편향이 완전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양적 연구의 연구가설 검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9와 같다.

Table 9. Comprehensive theorem on the verification results of quantitative research theory

Theory	Route	Adoption	Direction
Theory 1	Partial-model VS. QA complete model	Partial-model	
Theory 2	2-1	Rectangle→Job insecurity	+
	2-2	Business type→Job insecurity	-
	2-3	Freestyle→Job insecurity	-
Theory 3	3-1	Rectangle→Confirmation bias	-
	3-2	Business type→Confirmation bias	+
	3-3	Freestyle→Confirmation bias	+
Theory	Confirmation bias→Job insecurity	Selection	-
Theory 5	5-1	Rectangle→Confirmation bias→Job insecurity	Partial medium
	5-2	Business type→Confirmation bias→Job insecurity	Partial medium
	5-3	Freestyle→Confirmation bias→Job insecurity	Full medium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선호직업유형이 확증편향 및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선호직업유형에 대한 설문지 분석결과, 대학생의 선호직업유형은 흥미와 열정으로 전공에 대한 선택을 주도하고 있으며, 확증편향은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왜곡된 통찰과 직업적 대안 평가에 있어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며, 동기 부족을 야기한다. 진로를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취업준비와 직업탐색에 많은 방해요소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적 연구모형 1(부분매개모형)과 이에 대한 대안(경쟁)모형인 연구모형 2(완전매개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가설모형 1과 2 모두 전체적으로 적합한 모형이 아니지만, 세부적인 적합도 지수들의 평가에서 본 연구의 2가지 가설적 연구모형 중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부분 매개모형(연구모형 1)을 최종 분석모형으로 확정, 연구모형의 검정을 진행하였다. 선호직업유형이 취업불안에 대해 갖는 직접영향력 검증결과, 대학생의 직장형 특성이 취업불안에 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연구가설은 채택되었다($\beta=.239$). 사업형 특성은 취업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은 채택되었다($\beta=-.340$). 다만, 자유형 특성은 취업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다($\beta=-.110, p>.05$).

선호직업유형이 확증편향에 대해 갖는 직접영향력 검증결과, '직장형→확증편향'의 경로는 $p<.001$ 수준에서 부(-)적 직접영향력($\beta=-.274$)을 보여 연구가설은 채택되었다. '사업형→확증편향'의 경로에 대해 $p<.001$ 수준으로

정(+)^적 직접영향력($\beta=.374$)을 보여 연구가설은 채택되었으며, '자유형→확증편향'의 경로에 대해서는 $p<.001$ 수준에서 정(+)^적 직접영향력($\beta=.326$)을 보여 연구가설은 채택되었다.

매개변수인 대학생의 확증편향이 종속변수인 취업불안에 미치는 직접영향력 검증결과, 해당 경로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beta=-.127$, $p<.05$), 관련 연구가설은 채택되었다.

선호직업유형이 취업불안에 대해 갖는 간접효과에 따라 확증편향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세 가지 간접경로에서 모두 매개 효과가 나타나 각 연구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다만, 이러한 매개 효과의 양상에 있어서 선호직업유형의 3가지 차원별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직장형, 사업형 각 각과 취업불안의 관계에서 확증편향은 부분 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유형과 취업불안의 관계에서 자유형은 취업불안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갖지 못하므로 확증편향이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노동시장을 볼 때 취업보장이 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안감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직업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22], 직업유형별 인턴십이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등으로 크게 나누어 연구한 결과 역시, 직무 만족도면에서도 직업유형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밝힌[23]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본 논문 역시 같은 맥락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시사점들을 살펴보면 대학생은 선호하는 직업적 성향 및 이와 결부된 인지 심리적 태도에서 사업형과 자유형이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직장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연하지 못하거나 비합리적인 경향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특히 실질적인 진로 탐색 행동이나 취업준비와 관련하여 취업 장애 상황을 개인적, 혹은 사회적 이유로 판단하는 확증편향에 대해 사업형과 자유형은 개인의 노력이나 성취동기 부족에서 원인을 찾지만, 직장형의 경우에는 사회적 환경 및 구조적 문제로 이해하여 오히려 취업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다. 확증편향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수행에 있어서 조건이 좋지 않을 경우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때, 대학생의 취업불안을 줄이고 긍정적인 취업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향과 주어진 환경 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여 이를 어떻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인지적 차원이 중요한 예언 변

인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의 직업·진로선택 행동에 대하여 정보를 활용하고, 자신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함과 대학에서의 진로지도는 장애요인을 줄여주고, 학생들의 자기 이해를 통한 구체적인 목표와 방략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취업·진로문제와 관련된 긍정적인 자기 신뢰감 향상으로 합리적인 확증편향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 대상자의 지역적 한계점과 표집 방식의 한계점을 들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부 지역 표본만이 아닌 전국단위의 실증분석이 요구된다. 더불어 대학생의 취업에 지지적인 심리적 환경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유연한 사고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교육적, 심리 중재적,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요구된다.

References

- [1] H. S. Ah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decision, perfectionism, anxie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chool of Social Education, Seoul, Korea, pp.40-46, 2009.
- [2] H. J. Hhn,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Indecision, Internal of Control, Maladapted Perfectionism, Career Decisiob-Naking Self-Efficacy and Trait Anxiety*, Master's Thesis, A Study on the Master's Degre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p.47-53, 2012.
- [3] S. H. Choi, H. Y. Lee, "Influence on College Students' Depression of Anxiety, Unemployment Stress, and Self-esteem -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 ",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10, pp. 619-627,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10.619>
- [4] M. M. Choi, S. W. Yoon, M. J. Son, "The Effects of Dysfunctional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on Job-Seeking Anxie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 7, pp.3211-3217,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7.3211>
- [5] M. J. Kim, B. H. Kim, "The Effect of Anxie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0, No.1, pp.13-25, 2007.
- [6] J. H. Lee, *Effects of Career Indecision and Job-seeking Stress of College Students on Depression : focusing on control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Master's Thesis.

- Young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Kyungsan, Korea, pp.8-9, 2013.
- [7] E. J. Yoo, *A Study on the High-Educated People's Career Behavior according to the Chronic Youth Unemployment*, Master's Thesis. Study on the Master's Degree of Ewha Women's Graduate School, Seoul, Korea, pp.4-6, 2003.
- [8] S. Y. Lee,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matu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Jobs Seeking 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Dongsh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Naju, Korea, pp.29-31, 2015.
- [9] H. G. Kim, *The Effects of Employment Barriers on Job Preparation Behaviors : Focusing on Job Applicants in Korea Polytechnic College*,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IT Convergence Science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Industry, Cheonan, Korea, pp.93-98, 2018.
- [10] Y. J. So, J. S. Park, "University Students' job-seeking stress on career maturity in university adjust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seeking anxiety", *Korean Employment & Career Association*, Vol.6, No.4, pp.023-044, 2016.
- [11] J. Y. Seo, *Analyses of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ment Insecurity and The Standard of Selecting Workplace of Senior Students*, Master's Thesis, Paper at Kyunggi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uwon, Korea, pp.42-45, 2007.
- [12] M. K. Kim, *The Effect of Anxiety Level for the Cognition of Employment Possibility of University Student*,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yunggi University, Suwon, Korea, pp.29-49, 2008.
- [13] M. J. Cho, *The Effects of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on Job-Seeking Anxiety and Stres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pp.1-3, 2010.
- [14] K. Y. Cho, *The Effects of the Job-Seeking Anxie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pp.31-35, 2012.
- [15] H. W. Bang,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Job-seeking Anxiety of University Students", *Education Culture Research*, Vol.24, No.2, pp.101-116, 2018.
DOI: <https://doi.org/10.24159/joec.2018.24.2.101>
- [16] S. W. Yoon, *Structural Relationship of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Confirmation Biases and Job-Seeking Anxiety of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Gye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Suwon, Korea, pp.91-96, 2016.
- [17] J. W. Park, *In the Measurement of Job Preference Impact of Social Reputation: Focusing on Comparison with Implicit Measurement*, Ph.D.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thesis, Suwon, Korea, pp.105-109, 2013.
- [18] M. Y. Hwang, "A Study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College Entrance", *Korea Counseling Association*, Vol.37, 2002.
- [19] K. H. Lee, "Differences Between Four Types of Career Choice i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Indecision Factor",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11, No.1, pp.13-21, 2003.
- [20] K. S. Kim, *Structural Relationship of Myongri Occupational Apriority,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Ph.D. Dissertation, Gye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Suwon, Korea, p.11, 2014.
- [21] H. S. Kim,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Progress on Job Safety and Job Stress*, A Study on the Master's Degree of Dong-A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2.
- [22] Y. G. Ha, *The occupational value type and the degree of job satisfaction of the university graduate youth graduation influence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the first job : Apply the latent class analysis Model*,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Voc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 Social Welfare Kyonggi University, Suwon, Korea, pp.61-63, 2017.
- [23] E. S. Cho, *The Effects of Three Types Internship Program on Job Satisfaction and Job Decision-Making of High School Students: Focused on Professional Work, Office Work, Service Work*,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Korea, pp.82-85, 2013.

노 선 희(Seon-Hee Roh)

[정회원]



- 2006년 8월 : 동아대학교 예술대학원 미술학과 (예술학석사)
- 2018년 2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동양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명리학 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진로직업상담, 직업심리, 교육심리, 심리치료

김 기 승(Ki-Seung Kim)

[정회원]



- 2009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직업학석사)
- 2011년 2월 : 국제문화대학원대학
교미래사회교육전공 (교육학박사)
- 2014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직업학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한국선천적
성평가원장

〈관심분야〉

선천적성, 진화심리, 진로상담, 직업심리, 직업체질